# 漁港消息

발행겸 편집인 孫井植
인쇄인 金在克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서울특별시강남구논현동98
☎ 544—0610
544—0611

月刊 / 비매품
등록번호 : 라3459
등 록 일 : 1988년2월19일


**會訓**
● 誠實 ● 奉仕 ● 創意

## 港灣廳관할漁港區

# 管理소홀로老朽 취약 水産廳으로 移管해야

어민들은 항만법 제21조2항의 지정항만 이용구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어항구로 지정된 구역은 수산청장이 관리한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든가 제1종 및 제3종 어항(항만법 제21조2항4조)을 해운항만청장 대신 수산청장이 관리·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어항에 관한 업무를 수산청에서 관장하게 되면 어항별 시설을 보다 정확하게 점검할 수있고 노후 취약한 어항기능과 시설을 개·보수할수 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어선 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있다.

〈사진·이회수 수산청차장(좌측)은 손정식 한국어항협회 회장(좌측에서 두번째)의 안내로 矢野 일본전국어항협회 회장(좌측에서 세번째)과 만나 환담했다〉

인천항의 경우 전수면이 해운항만청이 관할하는 제1종지정항만으로 되어있는데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해서는 수산청에서 관장,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항만법에 따라 해운항만청이 제1종지정어항을 관장하고 있어 어민위주의 각종 시설투자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어민들은 단서조항을 항만법에 삽입하든가 항만법에 의한 어항구로 지정된 구역에 어항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산업계는 어항관리 문제를 놓고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각기 비슷한 운용을 규정해 어항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책임소재마저 불분명해 대다수 어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있다는 것이다.

## 日漁港협회矢野會長訪韓

### 韓·日어항懸案등을協議

일본의 전국어항협회 회장 야노데루시께(矢野照重)씨가 지난 10월 21일 12시 35분 김포공항착 내한, 손정식한국어항협회 회장의 영접을 받았다.

한·일 양국의 어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어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기 위해 내한한 야노데루시께회장은 오는 27일까지 체한하면서 수산청을 방문하고 남해항과 부산의 남항 등 어항도 둘러 본다(3면에 상보)

### 李羲秀차장禮訪

이회수수산청차장은 지난 10월21일 하오 3시 수산청을 예방한 야노데루시께 일본 전국어항협회 회장과 만나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어항의 중요성을 절감,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해마다 어항에 대한 투자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회수차장은 이에앞서 야노회장에게 「모처럼 우리 나라 어항계를 둘러보고 한·일양국의 어항계 현안을 진지하게 협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지난번 제40회 전국어항대회에 손정식회장을 초청해준데 대해 감사했다.

이회수차장은 마침 이동배 수산청장이 남제주수산출장소 배양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면담하지 못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어항계 인사와 협조를 돌아보면서 조언과 앞으로 양국의 어항계 유대강화에 기여해 주도록」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야노회장은 앞으로 한·일양국의 어항 발전과 어항인의 교류증진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양국의 어항협회의 유대강화에 주력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노회장은 이어 김시문시설국장과 만나 김시문 국장으로부터 「창립된지 2년도채 되지 않은 한국어항협회를 40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일본전국어항협회가 적극 협조하여 양국의 어항계를 다같이 선도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요지의 당부를 받았다.

## 漁港時論

# 漁港中長期 開發계획

### 關心과 期待 자못 큰

우리는 그동안 환산적인 숫자놀음에 참으로 많은 놀라을 당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를테면 모든 사업이 끝나는 몇년뒤에는 도농(都農)간의 소득격차가 몇%로 축소되며, 이에따라 농어촌의 환경이 지금보다 몇%이상 개선되고소득 또한 몇%로 향상될 뿐만 아니라…… 하는 이런류의 장미빛 청사진 말이다.

그러나, 정작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그 해가 지나가도 말처럼 유별나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아니 설사 달라졌다 해도 피부에 직접 감지되는 느낌이 웬지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던 그런 경험을 모두 갖고 있다.

특히 5년간만 기다려 보라, 10년간만 허리띠를 졸라매어 보라 하는 식의 중장기 계획일수록 씁쓸한 뒷맛을 남기는 허구적인 숫자놀음이 많아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다.

수산청이 기왕의 어항중장기 발전계획을 보완, 어항개발행정을 크게 개선할 방침이라는 소식을 듣고 말하기조차 민망스러운 허망한 숫자놀음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린 것은 어쩌면 만성화된 반사적인 역동작의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곰곰히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행정편의주의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실현가능한 어항개발을 이룩하려는 의지를 읽고, 저으기 흐뭇한 느낌을 갖을 수 없었다.

금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난 일이지만 건설비보다 보수비가 훨씬 더 들어간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한쪽에서는 짓고 다른 한쪽에서는 헐어내는 무분별한 도시계획 등 행정의 난맥상은 근본적으로 허술한 중장기계획에서 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항개발이란 적어도 1백년쯤, 혹은 그 이상을 내다보는 안목없이 선뜻 착수해서는 결코 안되는 사업이라 단언한다. 장미빛 청사진을 남발하여 손바닥으로 갚히 하늘을 가리려는 우를 범해서는 더욱 안된다.

# 漁港 표어 懸賞 公募

〈10月31日 마감〉

# 91年까지 基本施設완비

### 利用者도 輕微한 補修등 나서야

왜냐하면 어항개발은 이에 소요되는 많은 투자액도 문제려니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명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이다.

81년~87년까지 연평균 1천7백12척의 어선피해와 농림수산부에서 조사한 어민숙원사항 40개 중에서 어항시설에 대한 것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다만 매번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액에 대한 것이다. 적어도 연 8백억원쯤은 투자되어야 선진국수준의 어항개발에 어느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어항전문가들의 견해는 지금같이 취약한 투자액으로 항가거리 11km인 입분에 비해 꼭 3배인 33km의 우리 나라 항가거리를 과연 얼마나 좁힐 수 있을까 하는 의문들이 꼬리를 잇는다. 어항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인식이 새삼 아쉽기만 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항개발은 곧 지역개발로 연결되고, 효율적인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항에 관한 일이면 무조건 정부에 의존하려는 타성에서 벗어나 경미한 시설보수쯤은 어항이용자들이 스스럼 없이 해치우는 의식의 차원도 차제에 한단계 높여져야 할 것이다.

수산청의 어항중장기 발전계획에 거는 관심과 기대가 자못 크다.

## 漁港會館 建立基金을 募金합니다

### 알 림

한국어항협회는 회원권익을 효과적으로 구현 옹호하는 한편 협회의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회관건립에 나서기로 했읍니다.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재원은 여러 방안이 강구되고 있으나, 우선 회원들의 정성부터 기금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한국어항협회가 회관건립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기금을 기탁해 주셨고, 특히 본회 발행기관지인 「어항」지와 「어항소식」지에 심혈을 기울여 글을 써 주신 분들께서는 원고료마저도 선뜻 쾌척하시는 등 실로 본회 임직원들로 하여금 갈루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읍니다.

따라서 본회는 회관 건립의 반석이라할 이 갸륵한 「정성」을 우선 기금으로 모으기로 했으며, 그 깊은 뜻과 큰 정성이 소망하신대로 꼭 이루어지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會員權益옹호 基盤다지고자**

**韓國漁港協會**
■수협논현동지점
039-01-2553
■주택은행언주로지점
482601-87-002039

# 올해漁港修築사업順調

### 補修·補強사업등工期앞당겨

금년도 어항시설사업중 수축사업 3건, 보수보강사업 3건과 이월사업 거의가 지난 9월5일 현재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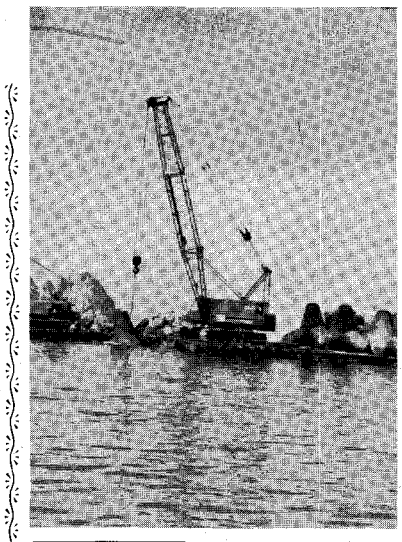
수산청에 따르면 올해 어항시설사업은 ■신규 수축사업 27건, ■보수 보강사업 8건, ■이월사업 11건 등 모두 46건으로, 대부분 11, 12월 중에 완료될 계획인데, 아야진항 수축과 맥전포항의 경우 공기를 상당히 앞당기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 9월5일 현재 완료된 어항별 시설사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괄호내 준공일자)

■아야진: 북방파제 상부 48m, 암준설 1,122㎥수축, 14억2천1백31만원(8월27일)
■덕 산: 방파제 축조 62m, 작업장 58m, 4억9천5백만원(9월5일)
■모슬포: 암파쇄 13, 780㎥(인양 11, 505㎥) 준설, 3억3천1백만원(8월30일)
■맥전포: 물양장 하부 60m, 암준설 4,424m, 보수 보강 2억7천3백만원(9월2일)
■도 두: 북방파제 하부 23m, 보수보강 4천1백7만7천원(8월20일)
■애 월: 방파제 하부 40m(하부두식 1식) TTP제작 보관 1백80개 보수보강 2억5천2백12만원

# 武昌浦港개발肯定檢討

## 基本施設확장整備등



수산청은 충남 보령군 웅천면 관당리의 제2종항인 무창포항 개발계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청은 무창포항이 어항으로서 여건이 양호하면서도 그동안 기본시설이 미비하여 어선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음을 감안, 앞으로 기본시설의 확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방파제 160m와 물양장 50m를 시공하며 4만5천400 입방미터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으로 1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 한국漁港 운영관리見學차 스파키탄키 어항公務員訪韓

파키스탄국 어항관계 공무원 2명이 오는 10월27일 내한, 우리 나라 어항의 운영관리 실태를 견학한다.

수산청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발루치스탄주의 파스니어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파스니어항 관리 사무국장외 1명을 우리 나라로 파견, 어항 시공과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살필 것이라고 한다.

이들 시찰단은 오는 27일 내한하여 31일까지 머물면서 인천·부산·죽동항 등 현장을 둘러보게 된다.

## 瑞山水協신청 漁港수축檢討

수산청은 서산군수협이 승인 신청한 어항수축사업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산군수협(조합장 진태구)은 관내 어항수축사업으로 물양장과 육상기능시설 등의 어항시설과 택지 부지, 관광단지 조성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현포항의 방파제 축조공사가 지난 7월10일자로 준공됐다.

◆지난해 5월29일 효성중공업이 착공한 이 현포방파제 축조공사는 올들어 지난 2월17일 재착공되었으며, 도급액은 모두 15억1백만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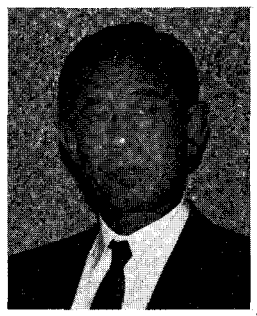
## 人工魚礁효과確實 沿岸수산자원增殖

영일,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일대에 설치된 인공어초가 연안어지원증식사업에 효과를 올리고 있다.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82년부터 경북 동해안 연안 일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인공어초를 제작, 설치해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효과를 알기 위해 올들어 영일과 울진 등 2개 지역을 선정, 지난 5월과 7월등 두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 日本漁港협회矢野會長에게듣는다

# "漁港의機能 갈수록다양"



矢野照重

일본은 제2차세계대전 패망이후 가장 심각했던 식량난을 바다에서 해결하기위한 방편으로 어항을 적극 축조했으며, 그와같은 열의가 현재까지 연면하여 어항사업비가 지방비를 포함해서 모두 2천7백억엔 규모에 이르고 있다.

지난 10월21일 하오 내한한 일본 전국어항협회 회장 야노테루시께(矢野照重)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같은 어항중시(重視)는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주창됐다는데 더욱 의의가 깊다고 말하고, 일본의 국회의원들은 일본이 국토여건상 바다에서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수산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어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창, 어항법도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는 열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야노회장에 따르면 현재도 국회에 어항정비촉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이 연합회에 가입한 230여명의 의원들은 해마다 어항에 관한 예산을 물론 제도 정비에 적극적이라고 한다.

한편 야노회장은 최근의 어항기능이 산업화에 부응, 어선을 보호하고 어획물을 양륙하는 고유의 단순기능 이외에도 들어나는 증양식시설을 보호하는 역할과 어촌관광 특히 어민의 어촌정착과 쾌적한 어촌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방편 등으로 부가가치가 높아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어항은 갈수록 기능이 다양화되고 이에따라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노회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추진되는 일본의 제8차 어항정비계획에 언급, 2000해리 정착화에 대응한 일본의 주변수역의 유효 이용과, 정보화시대에 따른 유통가공체제확립 그리고 활력있는 어촌 조성이 이기간의 목표라고 말하고, 이 기간에 총 2조4천1백억엔의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노회장은 끝으로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전국어항협회가 그동안 일본의 어항개발에 기울인 기여도가 행정부와 업계에 똑같이 지대하다고 밝히고 비록 창립한지 1년6개월에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어항협회도 앞으로의 역할에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 日、漁港法議員立法으로制定 국회가漁港개발整備를主導

## 動靜

### 행사

▲이동배수산청장을 비롯한 직원 90여명은 지난 10월18일 기계화 벼베기가 불가능한 지역인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솔운리 영세농가의 논에 벼베기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했다. 사진

한편 이동배수산청장은 10월21일 남제주군 위미2리 세천동에 세워진 남제주군 수산종묘배양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남제주수산종묘배양장은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대지 5천3백평에 7백66평의 각종 수산종묘배양시설이 들어서 넙치·돔 등 연간 80만마리의 어류치어를 생산하게 된다.

▲한국어항협회 손정식회장은 지난 17일 수산청장, 차장, 간사,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 개최된 수우회 회장단 간담회에 참석.

▲한국어항협회 김영환 상무이사는 지난 10일 오후 6시30분 호텔신라 디어너스티홀 2층에서 개최된 농오축산신보 창립기념 및 특수 일간지로서 전환에 대한 리셉션에 참석.

### 화촉

▲지난 10월20일 하오 1시30분 함의기씨(여수어항관리사무소 소장)의 동생 함용기군이 최은희양과 행복예식장에서 결혼.

### 회비납입

▲조홍균영 주식회사(조봉영사장)분납금

▲주식회사 세광종합기술단(최선환 사장)연회비▲조길환씨(여수수산대학 조교수)가입비 및 연회비

▲서기덕씨(아남건설주식회사 모슬포 소장)가입비 및 연회비

### 부음

▲최재학씨(수산청 시설과)조모께서 10월 10일 오전 3시 30분 영명, 발인은 10월 12일 오전 8시30분이며, 장지는 충남 연기군 전동 선영.

### 협회내방

▲김건세씨(아남건설주식회사 차장)

▲심 영씨(수산청 어항과)

▲임중언씨(주식회사 한국항공 감사)

▲박희도씨(수산청 어정과 사무관)

▲김일재씨(주식회사 범신기획 회장)

▲차주환씨(경원 대학교 교수)

▲김홍배씨(대한통운주식회사 이사)

▲장경남씨(구일산업주식회사 상무)

# 日,전국漁港大會서採擇한決議文그內容

# 漁港·漁村환경정비擴充등

어항인 등 수산인이 무려 4천2백여명이나 참석하여 일대 성황을 이룬 일본의 제40회 전국 어항대회는 일본 수산청이 새롭게 마련해서 주력할 제8차 어항정비계획을 촉진하고 89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라는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상보〉

이날 대회에서 채택된 4개항의 결의문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①제8차 어항정비계획의 촉진과 8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

200해리체제 정착화에 대응해서 일본의 주변수역의 유효이용, 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유통가공체제 확립과 활력있는 어촌형성을 위해 88년도부터 6년간 총사업비 2조4천1백억엔의 제8차 계획에 따른 수축 490개항, 개수분 약 920항, 기타 국부개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이들 3개사업은 총사업비 2조3백억엔에 대해 초년도인 88년도 시행예정은 2천8백7억엔, 진도 13·8%에 불과하다.

어려운 어업정세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응을 위해 어항정비사업의 계획적이고도 강력한 사업촉진이 가능하도록 89년도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②어항·어촌환경 정비사업의 확충강화와 89년도 예산증액확보.**

어업·어촌의 건전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인 어항정비와 함께 생활기반인 어업취락환경의 종합적인 정비,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설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현재의 급선무가 되고 있다.

89년도를 향한 새로운 구상에 바탕으로하여 어업취락환경정비사업의 확충, 강화와 어항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이 가능하도록 예산의 증액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③제4차 해안사업 5개년계획촉진과 89년도 예산증액확보.**

제4차 5개년계획은 86~90년도의 5년간에 농림수산, 운수, 건설의 3개부처가 총투자액 1조엔으로 해안의 보전과 환경정비를 실시한다는 것인데 어항, 해안은 총공사비가 1천2백90억엔인데 비해 계획 3년도인 올해까지의 실시예정액은 7백96억엔, 진도 62%의 예정이다.

89년도는 어업취락의 안전확보, 쾌적한 해안환경 창출을 위해 해안사업의 가일층의 촉진이 가능하도록 예산 증액 확보를 강력히 요망한다.

**④어항관계사업에 관계되는 지방정부안의 경감.**

국가는 재정부담 경감을 꾀할 목적으로 85년도이후 공공사업에 대한 고율보조금 인하를 실시해오고 있으나 이에 수반하는 지방부담증가는 지방자치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히 어항을 낀 도회지나 벽지, 낙도가 많을 뿐 아니라 공공투자에 차지하는 어항사업의 비율이 극히 높으며 재원대책 등 원활한 사업집행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89년 이후는 국고보조율을 복원하고 지방부담액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히 요망한다.

## 해외수산단신

# 漁港積算기준制定에나서

일본수산청 어항부는 업계로부터 요망에 의한 어항공사의 보합등 적산기준제정에 대비한 보합조사를 실시하게되어 최근 이를 각 縣에 통보했다.

이 조사는 수산청으로서는 적정한 보조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 현재 수산청에서 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어항표준적산기준에 반영시키는 자료로써 어항공사의 시공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농업토목학회 수산토목연구부회안에 시공적산검토위원회를 설치해서 보합관계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 마리노베이션計劃추진 道縣등予定지역을선정

일본수산청은 지난 7월20일 마리노베이션구상을 추진하면서 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안, 근해종합개발 지역정비추진사업 가운데 기본계획을 실시할 道縣 및 계획책정 예정지역을 발표했다.

이것은 지역의 정비개발방침과 지역의 정비개발에 관한 사항(어항관계사업, 어항해안사업, 연안어장개발사업, 수산물 중핵유통가공시설정비사업 등)등을 중심으로 구성되는데, 都道府縣에 대해 정부가 2분의 1을 조성하는 것이다.

올해의 1개년계획 예산은 3천94만7천엔, 실시지역수는 32개縣 40개지역이다.

## 日漁港심의회열어 지정변경등을승인

지난 8월4일 열린 일본의 제145회 어항심의회에서는 ①어항의 지정변경(구역의 확대)5개항 ②어업용 통신시설의 정비 1건을 자문대로 승인했다.

어항의 지정내용은 ①아오모리껭의 稻生(제1종) ②이와테(岩手)껭의 白濱(住居=제2종) ③야마쿠치껭 油田(제2종) ④카고시마(鹿兒島)껭의 蘭牟田(제2종)등의 5개항으로써 모두 방파제, 물양장 등을 정비하기 위해 해당 지구를 본항구역에 포함하는 등의 변경이다.

또 어업용 통신시설은 境어항(특정 제3종)의 톳토리(鳥取)껭 어업용 해안국시설이 노후화했기 때문에 鐵塔 4基, 局舍 1백20㎡, 자가발전장치, 송수신장치를 정비(어항법 제40조 규정)한다.

톳토리껭의 어업용 통신업무는 어항어업무선조합(境港市)과 톳토리껭어업무선협회(鳥取市)가 시행하고 있는데 2개 해안국 체제가 되어 있다.

양해안국을 합쳐 가입어선 2백72척, 통신량 2만4천7백통(87년도)과 톳토리껭 수산업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시설인데도 양해안국이 함께 시설이 노후화하여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

## 海洋開發에 積極 副應하기위해

# 漁港역할 갈수록莫重 對국민啓導 앞장서야

# 남애항등둘러보아 부산공동어시장도

## 矢野日漁港協會회장

일본국 전국 어항협회 회장인 야노데루시께(矢野照重)씨는 지난 10월21일 오후 峯岸政夫 서무과장을 대동하여 손정식회장의 안내로 이날 하오 3시 수산청을 예방, 이희수차장과 김시문시설국장을 차례로 만나 양국의 어항에 관한 공동관심사를 협의하고 우호증진 등에 관해 환담했다.

야노회장은 이날 오후 5시 경성대학 동창회에 참석, 우리 나라 돔문들과 한국에서의 재학시절을 회상하면서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다.

야노데루시께회장일행은 10월24일 어항시찰에 나섰는데 시찰항인 남애항에 가기 전 단풍이 곱게 물들어 더욱 아름다운 설악산에 들러 절경을 감상하고 25일 남애항에 도착했다.

남애항에서 야노회장은 우리나라 해안형태가 어항개발을 하기에 지극히 적합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야노회장은 이자리에서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 모두 어항 기능이 해양개발에 적극 부응하기위해 더욱 다양화되어간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역할의 막중함을 어항업계가 먼저 감지하여서 대국민 계도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

야노회장은 이날 하오 2시에는 망향정에 들러 절경에 감탄했으며 하오 5시경 주로 향발, 이곳에서 일박한 다음 26일 부산으로가 부산공동 어시장과 남항, 다대포항을 시찰하고 다음날인 27일 김해공항발 귀국할 예정이다.

〈사진·(위) 김시문 수산청시설국장(좌측에서 두번째)은 손정식 어항협회 회장(우측에서 첫번째)의 안내로 예방한 矢野 일본어항협회 회장(좌측에서 첫번째)에게 한국어항협회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래) 공항에서의 기념촬영. 우로부터 손정식회장, 矢野회장, 수행한 일본어항협회 峯岸政夫서무과장, 김영환 어항협회 상무이사〉

## 水理모형實驗끝내

수산청은 대진·현포항의 수리모형실험결과를 국립건설시험소로 부터 접수했다.

수산청은 대진항의 평면배치 및 단면실험과 현포항의 단면 한계파실험을 국립건설시험소에 의뢰 실시했었다.

수산청은 안마항과 어란진항의 지질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어란진항의 개발계획을 다시 보완하는 등 조정작업에 나섰다.

수산청은 (주) 동원토질에 위탁했던 안마항과 어란진항의 지질조사과업이 지난 8월27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이를 바탕으로 기존어항의 활용 개발계획을 조정하고 이 개발계획을 토대로 88년도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 안마항지질조사 결과토대재조정

## 정자항防波堤준공

정자항 방파제 축조 제5차 공사가 착공 7개월만인 지난 10월17일준공됐다.

지난 3월 19일 성호(주)가 착공한 정자항 제 5차 공사는 방파제 상부 58m, 작업장 116m(물양장 100m, 호안 16m)를 축조했으며 모두 6억5천8백만원이 투입됐다.

## 애월·도두港도

애월항 제2차 확장공사가 착공 4개월만인 지난 8월 17일 준공됐다.

지난 4월20일 세기건설이 착공한 애월항 제2차 공사는 북방파제 하부 40m, 하두부 1식, TTP 25톤 1백85개 제작을 내용으로 모두 2억5천2백12만원이 투입됐다.

(주) 서해 (대표 고세진)가 지난 4월29일 착공한 도두항 축조공사가 지난 8월 16일 준공됐다.

총공사비 4천1백7만7천원을 들여 이날 준공된 도두항 축조공사는 북방파제 하부 23미터를 축조했다.

## 어란진항基本計劃재수립 既存港활용하는方向으로

수산청은 어란진항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확정했다.

수산청이 다시 수립한 어란진항의 기본 계획은 조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존항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한 것인데, 소요접안시설 30m를 축조하며 항내와 항로구간을 준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천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만조시 미비된 호안시설로 인해 선박의 안전운항과 훼손에 영향을 주고있다.

인천항 수협부두공판장 건너편에 위치한 (주)대한기계에서 축협중앙회 인천사업소 제빙냉동 공장까지 1백50여m구간에는 선박의 안전접안을 위한 파일지설이 되어 있지 않아 만조시 호안 돌출부위에 선박이 끼는등 선박 안전 운항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일대 호안시설은 지상으로 1m밑부위에는 움푹파여 있어 만조시 선박이동이 자유자재로 움직일수 없는등 위험요소를 안고있어 어민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 仁川港의 接岸시설 改善時急

【인천】인천항 수협부두의 호안시설이 미흡, 선박 안전접안을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 정자등地質調査연내끝내

수산청은 정자 등 5개항이 지질조사작업에 착수했다.

수산청은 지난 6월 하순 (주)동원토질 (대표:장인섭)에 장자항을 비롯하여 소안, 물건, 격포, 외연도항의 지질조사를 5천1백50만원에 위탁 했는데, 동원토질은 지난 9월1일 조사사업에 착수, 연말까지 모두 끝내기로 했다.

## 漁港자료번역키로

수산청은 일본국 어항협회에서 발행한 어항구조물표준설계법을 업무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번역하기로 했다.

## 第1回 漁港사진 公募

한국어항협회는 어항에 대한 인식을 새롭고 바르게 제고하여 어항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홍륭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1회 어항사진 현상모모를 실시합니다.

본회 회원과 어항관련 종사자에만 참가자격이 부여되는 이번 공모에서는 어항과 관련이 있은 작품을 출품 대상으로 하나 출품에는 제한이 없읍니다.

■출품기한: 88·6—88·10·31까지

■작품심사 및 입상작품 발표:

㈎심사, 심사위원은 사계 권위자로 구성 엄격심사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2점 선정

㈏발표, 12월 어항소식 및 격월호 어항지에 발표

■상패 및 상금:

㈎금상, 200,000원

㈏은상, 150,000원

㈐동상, 100,000원

㈑가작 50,000원

■시상: 88·12월중(별도개별통지)

■기타: 출품 작품은 본회 귀속

다음의 요령을 참조하여 어항인들의 많은 응모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격: 본회 회원 및 어항관련 종사자

■출품대상: 어항과 관련이 있는 작품

■종류 및 규격: 흑백 및 칼라 8×10

■출품접수: 제한없음(뒤면에 작품명, 직장, 성명기재)

■출품처: 한국어항협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98번지

**한국어항협회**

전화: 544-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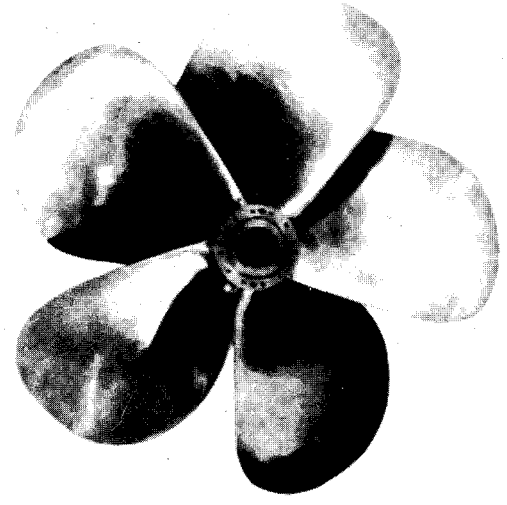
544-0611

**漁港人들의 많은應募를 바랍니다.**


국제규모의 프로펠라 및 축계생산메이커

# 신라금속

日本KAMOME PROPELLER와 기술제휴



신라금속은 선박의 경제적 안전 운항을 위한 고도의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프로펠라 전문생산 및 수출회사로 그 시설, 규모 그리고 생산능력에 있어서도 단연 국제적입니다.

신라금속은 상공부 조선용 기자재 전문 공장, 군수품 개발업체, 한국선급협회 등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영국 선급협회(LR)를 비롯한 NK, ABS, DNV승인 전문 공장으로 그 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지 이미 오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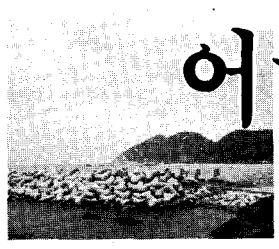
●단위생산능력 10톤
●월간생산능력 80톤
●단위수리능력 10톤

이제, 국내 최대의 규모와 시설을 자랑하는 신라금속—.
명실공히 세계속의 신라금속으로 그 사명을 다하겠읍니다.

●각종 선박용축계 설계제작 ●각종 선박용 프로펠라 설계제작 ●각종 동합금주물

신라금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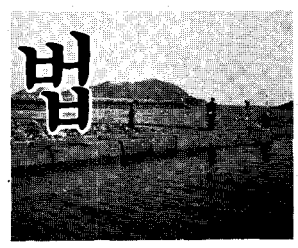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55 전화: 28-5001~2, 203-5001~2



# 어항공사 사진촬영법

〈1〉

## 工事사진의 분류



### 어떻게 촬영상의요점

〈현장전경〉 전체의 상황이 들어가도록 촬영한다. 동일화면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연결사진으로 촬영한다. 또 방파제의 신설의 경우는 기설구조물을 기점으로 하든지, 기설구조물이 없을 때는 기종점에 부표 등을 세워서 시공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진 배후에 육상 등의 구조물을 넣어서 촬영한다. 공사의 완성후 전경을 착공전과 대비하여 가급적 동일위치에서 촬영한다.

〈현장부분〉 부분사진은 공사의 주요개소 및 주요구조물을 촬영하는 것으로 각각 설명을 기입한다.

〈현장조건 변경개소〉 설계도서와 현지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청부계약에 따라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통지하고 그 확인을 요구하기 위한 자료로서 첨부할 실측도와 조사결과를 같이 확인할 사진이 필요하다.

〈공사별 시공상황〉 공종별로 시공단계에 맞춰서 시공상황을 촬영한다. 기성량과 시공법을 설명하는 사진이 필요하다.

〈안전관리 상황〉 안전관리의 사진은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원인규명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안전관리상황이 들어가도록 촬영한다. 특히 공기가 길 때는 당초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일시가 지났어도 공사기간중의 안전관리상황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한다.

〈재료 검수상황〉 공사에 사용한 재료중 완성후에 형상촌법, 수량 등이 확인 안되는 것을 촬영한다.

〈품 질〉 각종 시험 및 측정의 실시상황을 촬영하여 측정 및 시험성적표와 품질관리도표와 같이 품질 확인의 자료로 한다.

〈기 성 고〉 기성고관리의 사진은 그 촬영한 사진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폭판에 기입할 사항을 기입한 소폭판을 동시에 촬영한다.

〈재해등 손상〉 태풍 등 피해가 예측될 경우는 기성고를 판명할 수 있도록 전경 또는 부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한다. 또 공사재료의 반출, 작업선 및 기계기구 어선의 대피 등 상황을 촬영한다.

현장의 자연상황과 재해의 경과 등에 대하여 촬영한다.

△전경사진▽ 재해개소의 전역과 부근의 상황을 표시한 전경사진을 촬영한다. 이때 피해개소의 기종점에는 표식 등을 세워서 피해구간의 범위를 명시한다.

△부분사진▽ 재해부분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촬영한다.

| 무엇때문에 | 무엇을 | 언제 착공전 | 언제 시공중 | 언제 완성후 | 얼마나 |
|---|---|---|---|---|---|
| 목 적 | 촬영의 대상물 | | | | 촬영빈도 |
| 현장조건 파악 | 현장전경 | ○ | ○ | ○ | 착공전 1회 시공중 정기적으로 완성후 직시 1회 |
| | 현장부분 | ○ | ○ | | 상 동 |
| | 현장조건 변경개소 | ○ | ○ | | 필요에 따라 |
| 공사사진 시공기록 | 공사별 시공상황 | | ○ | | 공사별로 필요에 따라 |
| | 안전관리 상황 | | ○ | | 정기적으로 |
| | 재료(지급재 포함) 검수상황 | ○ | ○ | | 품목별로 |
| 확인증거 | 품 질 | | ○ | ○ | 시험측정시 |
| | 기 성 고 | | ○ | ○ | 필요에따라 수시 |
| | 재해등 손상 | 피재전○ | 피재중○ | 피재후○ | 상 동 |

# 갈치

## 가을철에 특히 맛이좋은

## 안강망으로 11만톤어획

갈치는 지난해(87년) 11만3000톤이 생산되었는데 대부분 90%이 근해안강망어업에서 어획되었다.

연중 맛이 있는 백색육(白色肉)어류에 속하고, 4~5월경 난소(卵巢)가 숙성되고, 지방이 많이 축적되었을 때 가장 맛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가을철이 특히 맛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알(卵巢)은 촉감이 좋지 않아 맛이 별로 없는 편에 속한다.

### ◇갈치튀김조림

●재료

잔갈치 · · · · · · · · · · · · · · · · 400g
녹말 · · · · · · · · · · · · · · · · · · 1큰술
밀가루 · · · · · · · · · · · · · · · · · 2큰술
고추장 · · · · · · · · · · · · · · · · · 1큰술
케찹 · · · · · · · · · · · · · · · · · · 2큰술
간장 · · · · · · · · · · · · · · · · · · 1큰술
통깨 · 설탕 · · · · · · · · · · · · · · 1큰술
생강즙, 청주, 발효조미료, 콩기름

●만드는법

①갈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선택하여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청주를 뿌린다.

②①의 갈치에 녹말, 밀가루를 혼합하여 골고루 뿌려 갈치에 배이면 섭씨 170도의 콩기름에서 바삭하게 튀겨낸다.

③냄비에 고추장, 간장, 설탕, 발효조미료, 생강즙, 물 3큰술, 토마토 케찹을 넣고 끓으면 튀겨낸 갈치를 넣어 조려낸다.

④접시에 갈치를 담고 통깨를 뿌려낸다.

### ◇갈치 풋고추조림

●재료

갈치 · · · · · · · · · · · · · · · · · · 2마리
풋고추 · · · · · · · · · · · · · · · · 5개
간장, 파, 마늘, 고추가루, 청주, 물, 설탕, 발효조미료.

●만드는법

①갈치는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손질하여 5~6㎝ 길이로 썬다.

②풋고추는 통으로 썰고, 파, 마늘은 다져서 간장, 고추가루, 청주, 물, 설탕, 발효조미료를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③냄비에 약간의 기름을 넣고 갈치를 넣은 뒤 양념장을 끼얹으면서 조림을 한다. 거의 익을 무렵 풋고추를 꺼낸다.

## 1·3種港 位置와區域 〈끝〉

■물 건△경남 남해 삼동 물건(제1종어항)▽ 물건리본부락 남동측(동메산) 돌출부에서 정동으로 100m절해상)과 북동측(당기산) 돌출부를 연결한 선내의 수역

■미 조△경남 남해 삼동 미조(제3종어항)▽ 북항본촌 돌출부에서 미조도 서단부와 간단개 북측 돌출부에서 미조도 동부 돌출부와 연결한 육지 선내수역 남항미조도 동측 1, 100m고지 정상에서 정남으로 연결되는 해안돌출부에서 600m지점과 직각방향인 정서측 육지와 연결한 선내수역

■도 두△제주 제주 도두 1(제1종어항)▽ 도두1동 해안초소(구 물양장) 중심반경 800m선내수역

■애 월△제주 북제주 애월(제1종어항)▽ 북방파제 기부를 중심으로 반경 500m선내수역

■추 자△제주 북제주 추자 대서(제3종어항)▽ 전면 등대를 기점으로 북45도 동으로 100m의 육지에 이르는 직선과 내각 90도를 연결한 선내수역

■신 양△제주 북제주 추자 신양리 제3종어항)▽ 신양리 동측 돌출부 선단에서 남서측 대안 117m정상) 돌출부와 연결한 선내수역

■모 슬 포△제주 남제주 대정 하모(제1종어항)▽ 동방파제 기부 정남방향 300m절해상)에서 직각으로 우측은 육지와 연결하고 좌측은 600m떨어진 점(해상), 이 점에서 정북으로 육지와 연결하는 선내수역

■위 미△제주 남제주 남원 위미(제1종어항)▽ 동방파제 기부 시점에서 서측(위미 1리) 돌출부측으로 연결한 선상 중심점 해상 320미터) 을 반경 400미터 원내의 수역

■계 61개항
제1종어항: 37개항
제3종어항: 24개항

# 엉터리 '바겐세일' 에속지맙시다.

## 무시할수도, 믿을수없는 '허' 와 '실'

고도성장과 함께 대량생산, 대량소비 시대를 맞아 '바겐세일'이라는 외래어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해졌다.

그러나 소비자들로서는 믿을 수도, 그렇다고 전적으로 무시해 버릴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바겐세일'이다.

'바겐세일'의 본 뜻은 철이 지나거나 재고가 쌓인 상품, 또는 흠이 있는 상품에 최소한의 이윤을 붙이거나 또는 생산가격 이하로 싸게 파는 것을 의미한다.

업자쪽에서 보면 보관료나 이자 부담 등을 덜고 자금 순환이 빨라지는 잇점을 누릴 수 있다. 또 소비자들에게 봉사한다는 뜻도 담겨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1년에 한 두 차례 실시하는 '세일' 기간을 소비자들은 목이 마르게 기다린다고 한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런던의 어느 유명한 백화점이 '세일'을 시작하는 날에는 캄캄한 밤중부터 소비자들이 몰려 몇천명씩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

평소 장만하고 싶던 물건을 평소보다 훨씬 싼 값에 사들이는 즐거움을 맛보기 때문이다.

미리 점 찍어둔 물건이 다 팔리기 전에 사기 위해서 한 밤중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다. 백화점 쪽에서 흠이 있어 싸게 파는 물건의 경우, 반드시 백묵으로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서 소비자들이 그 상품의 결점을 미리 알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결점 때문에 싸게 파는 것입니다'라고 고객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또 값비싼 주방용품 등은 순전히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로 '세일' 기간중 할인판매를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한정된 양이 순식간에 팔려 버린다고 한다.

우리의 경우 어떠한가. 우선 '바겐세일'의 횟수가 너무 많아 연중무휴로 '바겐세일'을 하는 느낌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및 일정 면적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의 연간 할인특매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유명 백화점에서까지 갖가지 이름을 붙여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래시장이나 의류도매상가, 변두리 양품점 등 군소상가의 '바겐세일'은 아예 연중 무휴로 1년 내내 계속된다. 1년을 하루같이 '점포정리 파격세일, 무조건 7천원'이라는 아크릴 표지판을 내라 성수기에는 높은 정가를 붙여 팔지만 일단 계절이 끝날 무렵이면 원가로 값을 내려 판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매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게다가 상품의 품질마저 엉망인 경우가 많다. 이름있는 양화점에서 '세일'중 사서 신은 구두가 2개월만에 가죽이 터져 못신게 됐다는 소비자의 고발이 있었다.

'세일'기간 중에 산 유명한 기성복 메이커의 양복을 한 번도 제대로 못 입었다는 불평도 있다. 옷감에 줄이 가고 뒤틀려서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어떤 의류대리점에서는 '이 기간 중에 구입한 상품은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푯말을 당당하게 내걸고 '바겐세일'을 내세우며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례도 있었다. 보통 때의 상품과 '세일'기간 중의 상품이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아예 '바겐세일'용 상품을 따로 만들어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소비자 보호단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또 유명상품의 의류를 40%이상 할인판매하는 경우는 대부분 가짜 상품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도 '바겐세일'은 해가 갈수록 더욱 성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물건을 사기보다 대특매, 파격세일, 90%할인 등 업자들의 과대광고에 이끌려 충동 구매를 하는 경향 때문이다.

상인들은 똑같은 상품이라도 가격을 비싸게 매겨 놓으면 고급품인 줄 알고 소비자들이 사 가지만, 정가를 낮게 표시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며 소비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고 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이같은 엉터리 '바겐세일'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업자들의 상도의(商道義) 확립이 앞서야 하겠지만,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알뜰한 구매습성을 기르는 것도 큰 과제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 충동구매겨냥, 갈수록성행…알뜰구매습성길러대처

♣생·활·경·제═생·활·경·제♣

♣생·활·경·제═생·활·경·제♣